

■ 진화 거듭하는 주가연계증권(ELS)

M 재테크
Money

지난해부터 불기 시작한
주가연계증권(ELS) 투자
열기가 뜨겁다.

은행 예금금리에 민족하
지 못하지만 주식투자도
끼리는 종도성형의 투자자
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으면
서 안전성도 어느 정도 갖
추고 있는 것으로 인식돼
인기를 끌고 있다.

실제로 올들어 4월말까
지 총 발행규모가 6조2천
26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조8천884억원에 비
해 60%나 늘었다.

그러나 상품구조가 워낙
다양하다는 상품설명이 다
소 생소한 전문용어로 끌어
있어 선뜻 가입하기 쉽지
만은 않다. 특히 2003년 도
입된 이래 상품이 진화를
거듭해 갈수록 구조도 복
잡해지고 제시하는 수익률
도 다양해 투자자들이 상
품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목표수익률 달성하면 조기 상환

주식 꺼리고 예금 불만인 중도형 투자자에 인기

4월까지 6조2천억 발행...작년보다 60% 늘어

◇ELS 진화의 키워드는 '실현가능성'
=2003년 도입 초기 나온 상품들은 주가
가 많이 오르면 수익이 나는 단순한 구
조였으나 실제로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
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예상보다 너무
높게 상승하면 오히려 수익률이 축소되
는 구조였다.

이에 따라 최근 상품들은 주가가 어느
정도 하락해도 수익이 나는 대신 많이
오르더라도 수익률이 연 10% 안팎의 일
정 수준을 넘지 않는 구조로 바뀌었다.

비록 수익률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실현
가능성이 높아져 투자자들이 관심을 끌
수 있는 구조로 바뀐 것이다.

초기 형태의 주요 상품은 다음과 같다.

①녹-아웃(KNOCK OUT) 방식 ELS
=도입 초기부터 2004년 상반기까지 주
로 발행됐던 상품들이다. 물론 최근에도
이와 유사한 상품들이 계속 출시되고는
있지만 주류에서 벗어나 있다. 대부분 주

가가 많이 오르면 수익이 나는 대신 하
락하면 원금을 보장하도록 돼 있는 상
품들을 말한다. 특히 정해진 수익이 이상이
나면 수익률이 고정되거나 원금을 주는
형태로 돼 있다. 예를 들어 수익률은 목표
가 연 20~30% 정도 되지만 주가가 30% 정도 올라야 가능할 것이어서 사실
상 실현가능성이 크지 않았다.

②일정수익 보장형 ELS=말 그대로
'원금 + α'를 보장해 주고 주가(코스피
200가지수)가 오를 경우 추가이익을 주는
수익구조를 가진다. 원금을 보장하는
녹-아웃 방식보다 조금이라도 높은 수익

가능성이 높아져 투자자들이 관심을 끌
수 있는 구조로 바뀐 것이다.

③초기상환형 ELS=만기는 주로 2~
3년이지만 통상 6개월마다 일정조건을
충족시키면 조기상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상품으로 2004년부터 등장, 최

▲주가연계증권(ELS : Equity
Linked Securities)=주가 또는
지수의 변동에 따라 만기 지급액이
결정되는 증권으로 투자자는 만기
시에 원금 + α 또는 원금의 일정비
율을 받게 된다. 투자자금의 일부
는 채권투자를 통해 원금을 일정부
분 보장하고 나머지는 주가지수 또
는 개별 종목의 등락에 연동해 수
익률을 결정하는 옵션 등으로 구성
된 파생상품의 일종이다.

근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주로 2개의 주
식을 기초자산으로 운용한다. 수익률은
기초자산의 변동성 등을 감안해 12~
20% 정도 선에서 주로 결정된다.

최근 들어 연 수익률이 높은 상품들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지만 전문
가들은 수익률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상품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수익률이
높은 만큼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
이라고 이들은 설명했다.

④하향계단식(Step down) 조기상환
형=주로 2년 만기로 투자자들이 현재

주가가 높은 수준을 형성하고 있다고 생
각할 경우 선호하는 상품이다. 예를 들어
상품의 기초자산들이 6개월 뒤 85%이
상 하락하지 않으면 일정 수익률로 조기
상환되며 이때 기초자산들의 주가가 이
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1년 뒤 80% 이하
로 하락하지 않으면 조기상환이 가능해
진다. 또 1년6개월 뒤에는 75%이하로
하락하지 않으면 조기상환된다. 물론 만
기시에는 기준일 대비 기초자산의 주가
가 40% 또는 50% 이하로 하락하지 않
아도 원금보존이 가능하다. 이보다 낮은
주가로 수익률이 확정된다. 되도록 안전
성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을 의식해 만든
상품이다.

⑤상향계단식(Step up) 조기상환형=
투자자들이 주로 주가가 낮은 상태라고
판단될 때 선택하는 상품이다. 예를 들면
6개월 뒤 기초자산의 주가가 기준일 대
비 85%이상이면 연 14% 수익률로 조기
상환되며 100% 이상이면 18%, 120%
이상이면 18%로 조기상환되는 구조이
다. 보다 높은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들에
게 적합하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아파트 하자보수 1~2년 연장

빠르면 2008년부터...위생설비·마감공사 등

이르면 2008년부터 아파트내 화장실 변기·욕조·창문틀·타
일 등 13개 공사항목에 대해 건설사로부터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현행보다 1~2년씩 늘어난다.

2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하자보수 책임기간 연
장에 대한 연구용역작업이 최근 마무리돼 관계부처 협의, 규
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연구용역에 따르면 현재 하자보수 기간이 규정된 57개 항목
(공사종류는 17개) 가운데 13개 항목에 대한 보수기간을 늘
린다. 화장실 변기·욕조 같은 위생설비공사는 현재 1년에서 3
년으로, 창문틀·문짝·창호 등 창호공사와 미장·칠·도배·타일
등 마감공사는 1년에서 2년으로, 지붕 및 지붕 방수공사는 3
년에서 4년으로 각각 연장하는 방안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 방안은 소비자 권의를 증진시키는 대
신 건설사에게는 부담으로 연결돼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꼼꼼
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

국민銀, 신용대출 한도 2배 확대

1억원으로 상향...금리도 최대 0.3%p 내려

국내 최대은행인 국민은행이 신용대출 한도를 100% 늘리고
금리도 최대 0.3%포인트 낮추기로 함에 따라 은행권의 신
용대출에 지각변동일 전망이다. 최근 치열한 은행 경쟁에서
신중한 자세를 보여왔던 국민은행이 신용대출 시장에서 적극
공세로 전환함에 따라 은행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현재 5천만원인 신용
대출 한도를 6월부터 1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이 신용대출 한도를 상향조정한 것은 2000년 이후
처음이다. 현재 주요 시중은행들의 신용대출 한도는 5천만원
에서 1억원 사이로 이번 조정을 통해 국민은행의 한도는 은행
권 최대급으로 올라서게 된다. /연합뉴스



현대건설, 워크아웃 조기 졸업

채권단, 5년2개월만에 공식선언...매각 작업 금물살

현대건설이 24일 5년2개월간 워크아웃(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에서의 졸업
을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 매각작업은 하반
기쯤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며 현대건설
인수를 위한 업체간 물밑 경쟁도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

◇워크아웃 '졸업' 선언 = 외환은행과
산업은행·우리은행 등으로 구성된 현대
건설 채권단은 24일 현대건설의 워크아
웃 졸업을 공식 선언했다. 채권단은 "현
대건설이 리파이낸싱(자금재조달)에 의
한 기존채권의 조기상환을 완료하고 주
주협의회 구성이 완료돼 지난 4월7일 채
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결의한 '워크아
웃 조기종결 요건'을 충족, 워크아웃 졸
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01년 3월 워크아웃
 당시 현대건설에 파견됐던 채권단 자금
관리단은 인수·합병(M&A) 지원단으로
바뀌고 현대건설은 채권은행단의 자금
통제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경영이 가능
했다. /최경호기자 choice@



나비 액세서리

24일 서울 강남 신세계백화점에서 올 여름 유행할 나비모양의 액세서리를 선보이자 매장을 찾은 손님들이 신기한 듯 구경하고 있다. /연합뉴스

창립 80주년 맞은 유한양행 장수비결은 '노사 공동운명체'

유한양행이 올해로 창립 80주년
을 맞았다. 유한양행이 걸어온 길은
국내 제약산업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한다.

유한양행은 고(故) 유일한
(1895~1971) 박사가 '건강한 국민
만이 잊어버린 주권을 되찾을 수 있
다'는 신념으로 1926년 6월20일 세
운 민족 제약기업이다.

일제시대 결핵치료제와 항균제
등 필수 의약품을 내놓으며 발판을
다졌다. 60~70년대 고속 성장기를
거치면서 장수기업의 기틀을 마련
했다.

특히 1971년 창업자 유일한 박사
가 태계하면서 유연을 통해 주식을
'한국사회 및 교육원조 신탁기금'
(1976년 제단법인 유한재단과 학교
법인 유한학원으로 분리)에 기증하는
등 자신이 일궈놓은 부를 사회에
환원하면서 국민의 사랑을 받는 기
업으로 거듭났다.

유일한 박사는 "기업의 모든 구성
원은 하나의 공동운명체"라는 신념
을 갖고 1936년 주식회사로 전환하
면서 회사주식을 공로주 형태로 직
원들에게 나눠주며 실질적인 '종업
원 주주제'를 실천했다. /연합뉴스



한 박사의 친인
척은 단 한명도
없다. 현재의 차
중근 사장(사
진)을 비롯해
유한양행의 전
현직 최고경영
자들은 모두 평생으로 출발해 최
고 자리에까지 오른 사람들이다. 유
한양행은 이후 이를 토대로 '빼꼼
씨', '안티푸라민', '알마겔' 등 누구
나 알 만한 히트상품을 내놓으면서,
긴밀한 노사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성장기로 들어갔다.

유한양행의 장수비결은 노사관계를
손꼽는다. 유한양행에서는 CEO도
월급을 받는 근로자라는 의미에서
'노사관계'가 아니라 '노노(勞勞)관
계'라는 표현을 쓴다.

유일한 박사는 "기업의 모든 구성
원은 하나의 공동운명체"라는 신념
을 갖고 1936년 주식회사로 전환하
면서 회사주식을 공로주 형태로 직
원들에게 나눠주며 실질적인 '종업
원 주주제'를 실천했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업 체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피리밸리	보조 여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26	062-521-1100
㈜빅미트	정규직 전산관리 경력사원	대졸/경력2년	회사내규	05/28	062-650-2205
㈜이스퀘어텍	품질관리, 설비관리 경력직	초대졸/경력2년	회사내규	05/29	062-973-7041
㈜휴플러스	설비보전직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5/29	062-949-4121
㈜HRN	동시지원기능 SKT 114 및 CRM 고객상담직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5/30	062-529-2671
㈜복천개발	실내건축 디자이너	초대졸/경력2년	1,000~1,200	05/30	062-676-2470
㈜한국공업엔지니어링	2006년 정규직 비파괴검사사원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5/31	062-369-0790
농협증인회	농협증인회 호남여신영업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31	062-267-9947
청호환경개발㈜	업무관리, 공무(일부)	초대졸/경력1년	1,400~1,600	05/31	062-526-9640
토박이기획	플래쉬(모션&액션)제작 프리랜서	고졸/경력1년	회사내규	05/31	062-610-5133
한화국토개발	한화 푸디스트 호남총장소 마케팅담당 인력	고졸/경력2년	회사내규	06/01	02-729-3829
빛고을 특허법인 사무소	특허사무원, 특허영세서 작성(기계전공자)	대졸/경력무관	1,400~1,600	06/10	062-954-3073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통계 발표시간 변경없다"

韓銀, 통계청 변경방침에 반대

통계청이 이달 말부터 주요 경제지표 발표시간을
오전에서 오후로 변경기로 한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같은 방안에 대
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24일 "통계청이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 고용동향 등을 앞으로 오후 1시30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으나 한은은 이와 관계없이 기준
발표시간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현재 월별 지표인 국제수지와 분기별 지표
인 실질 국내총생산(GDP) 관련 통계를 오전 8시 정
각에 발표하고 있다.

한은은 지난 2004년 2월 통계내용의 사전누출 가능성을 차단하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막는다는 이유
로 통계청과 함께 주요 경제지표의 발표시점을 오전
으로 변경했지만 이번에는 통계청과 다른 행보를 보여 주목된다.

한은은 이에 대해 경제지표를 오전 일찍 발표하는
것은 시장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도